

제11회 기생충 예방강조주간

4만3천여명에 상담·시청각교육

1만1천명엔 검사, 투약도



한국기생충박멸협회와 한국건강 관리 협회는 보건의달을 맞아 지난 4월18일부터 4월23일까지 기생충 예방강조주간을 설정하고 각종 행사를 벌여 다대한 계몽효과와 더불어 각종 검사도 실시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이바지 했다.

즉 포스타 42,000매를 제작, 각급학교 유관기관, 의료보험 단위조합, 시, 군, 구, 면, 리, 동까지 배포하여 계몽효과를 거양하였으며 각종 표어 10만매, 검진안내서 10만4천매를 각각 발행, 계몽했다.

또한 T·V 광고 28회, 라디오방송65

회 가두방송 49회, 신문계몽 60회, 강연회 슬라이드및 영화상영 152회, 건강상담소 설치 36개소, 현수막등 96개를 설치하여 시청각등의 계몽도 결들였다.

교육인원수는 4만3천여명에게 상담 및 시청각교육을 실시했으며 1만1천명에게 현장 검사및 투약도 실시하여 예방강조주간의 의의를 드높이기도 했다.

각시도지부는 지부별로 관내도시중심가에 가두 무료상담및 검사소를 설치, 기생충상담과 건강관리상담을 벌여 시민들의 예방사상을 고취시키기도 했다.

내무부에 적극 협조요청

보사부, 비전염성 만성질환 관리사업

보건사회부는 지난 4월27일자로 내무부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한국건강관리협회사업에 적극협조해 주도록 협조 요청했다.

즉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암, 고혈압, 당뇨병, 뇌혈관질환등 소위 성인병이라 불리는 비전염성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성인병의 조기발견및 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인식부족 장비부족 재정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이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내무부및 각시도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라며 健協 시도지부에서 시·도당국에 협조 요청이 있을시는 동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농촌모내기 일손 돕기

기협본부, 서울·경기지부 합동으로

기협 본부및 서울지부, 경기지부 전 직원은 지난 5월30일,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산본리 안영준씨의 논 1,000평을 모내기하여 농촌 일손돕기 모내기 지원사업을 폈다.

안상무이사를 비롯한 전직원은 이날 하루를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도와 새마을 운동정신을 더한층 일깨웠다.

춘계 체련대회

5월27일, 경기도 송추에서

기협 본부 직원일동은 춘계 체련대회의 일환으로 경기도 송추에서 건강의 기분이 되는 신체단련을 했다.

지난 5월27일 거행된 춘계 체련대회에는 안상무이사를 비롯하여 본부 전직원이 참가했다.

기생충관리 대책회의 徐사무국장등 8명 참가

7월 4일부터, 29일까지 일본및 대만에서 개최되는 기생충관리 대책회의에 寄協에서는 徐基弘서울지부 사무국장 등 대표단 8명을 파견한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지부 사무국장 徐基弘, 경상남도 사무국장 河成美, 보건사회부 보건기좌 朴永圭, 문교부 행정사무관 洪起燮, 충청북도 사무국장 崔益鉉, 본부 조사연구과장 元容福, 부산지부 서무과장 金秉燮, 보건사회부 행정사무관 李光秀